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3년 3월 뉴스레터 vol. 63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연대와 협력의 원년을 만들자

장례후기 한겨레두레가 다른 상조회사에게 욕먹는 이유

공간채비 이야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공간채비

메멘토모리 영혼을 기다리는 고요한 시간

채비학교 마음치유 프로그램 '상실에서 삶으로' 후기

조합소식 밀알복지재단 업무협약

연대와 협력의 원년을 만들자



2022년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설립 이래 처음으로 탈퇴가 가입보다 많은 초유의 해로 기록되었다. 2010년 설립했으니 12년만의 일이다. 10년 넘게 지속해온 완만한 증가세가 멈춘 것이다. 왜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났을까. 몇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먼저, 코로나19 유행의 지속에 따른 조합활동의 위축을 꼽을 수 있다. 경북궁 시대를 접고 야심차게 충무로로 이전하자마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다. 사회전체가 멈춘 것 같았고 우리 조합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합활동은 기본적으로 대면접촉이 원칙이다.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의 지속은 협동조합 활동에 치명타를 입혔다. 조합원 모임도, 교육도, 이사회와 총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위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차질, 무역수지 악화와 반도체 경기 하락,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조합원에게 탈퇴 사유를 물으면 그 답이 한결같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월 조합비 3만원 불입이 버거운 것이다.

그 다음, 정치환경의 변화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민주진영이 연이어 참패하면서 거센 역풍이 불었다. 마을,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진영이 급속히 축소·약화되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공공에서 지원하던 공간에서 쫓겨난 사례가 심심찮게 보고된다. (지방)정부의 관련 예산도 대폭 축소, 삭감되었다.

올해도 작년의 불길한 기류가 감지된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조합을 살리고 조합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조합은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추진하는 온라인몰 '더센몰' 입점을 추진하였고, 곧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연대회의)와 '새(SE)로운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내가 협동조합에 몸담은 지 10년 동안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얘기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지만 구현된 사례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 사무치는 외로움이 있었다. 늘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녔다.

스스로 자생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의 표상으로 우뚝 세워달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소중한 자산이자 공동의 그릇이다. 연대와 협력의 상징으로 빛나게 해달라. 피나는 외침에 마침내 화답이 왔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행동을 결의하고 그 1호 사업대상으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선택한 것이다.

이 공동행동을 통해 조합원 증대, 장례행사 증가, 업무협약과 홍보의 확대, 공동사업 추진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공동행동’ 결의는 여러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경제인들이 모여 정책과 제도개선에 치중한 데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현장조직을 지원 육성하고 연대와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자고 결의한 것이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앞으로 연대회의와 손잡고 ‘공동행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 5호...공동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연대회의가 이렇게 나서는데 우리 조합원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인에게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달라고 권유하자. 우리 조합은 충분히 믿고 추천할 만하다. 한명 한명의 힘이 모인다면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힘으로 우리 조합을 대한민국 대표 상조이자 사회적경제의 성공사례로 만들자. 그날을 보고 싶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2023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정기총회가 2월 24일 충무로 공간채비에서 개최되었다. 공간채비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단위 협의체 7개소, 광역협의체 9개소, 업종협의체 11개소 및 유관기관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승석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유엔 결의안 채택과 권고사항이 구현되도록 우리 사회적경제는 물론이고 정부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SE로운공동행동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다음은 연대회의 총회에서 채택된 'SE로운공동행동결의안' 전문이다.

우리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을 싣는다.

*전체 납입금 중 운영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SE로운공동행동 결의안

〈2022년 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는 사회적경제를 『연대의 실천을 통해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활동』임을 밝히는 한편, 연대를 통한 경제/사회적 문제의 대안적 해결 주체로서 실질적인 주체로 지역사회를 만들어 드러내기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다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의 〈사회적경제 다움〉은 사회적가치 창출과 실천적인 연대이다. 더불어 사회적경제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다운 차별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장구축이 중요하다.

대내외적 평가는 연대 효능감이나 체감도, 사회적 효능감이나 시민 체감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합의와 협력은 소수의 합의와 협력보다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고, 시민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장구축은 규모화가 이루어질 때 그 가능성이 커진다.

연대회의는 임원워크숍을 통해 위와 같은 고민은 물론이고 사회적경제의 조직력/집행력 강화란 고민을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단체가 〈지역/업종·소셜미션/유형·부문〉의 사회적경제 주체가 함께하는 4차 네트워크 조직인 연대회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하게 활용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그 결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연대회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줄 연대회의 차원의 사업으로써 〈전략적 공동행동〉이란 공동(캠페인) 사업 추진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향후 N개의 규모와 범위에 구애를 받지 않는 N개의 다양한 공동행동이 회원단체를 통해 도출될 것을 기대하며 많은 고민을 나누었다.

이렇게 하여 사회적경제 다운 공동행동이란 개념을 잡고 ‘SE로운공동행동’이란 사업을 설정하고, 『사자(死者) 추모와 가족 위로의 장례문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사람중심 상조시장』을 위한 제1호 SE로운공동행동으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와 시작하게 되었다.

연대효능감과 시민체감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지속가능 전략이다. 그렇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연대가 늘 모색되어야 한다. 제1호 공동행동은 오늘의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문을 여는 것이자 길을 만드는 것이기에 성공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제1호 공동행동 성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허례허식의 장례문화를 사자(死者) 추모와 가족 위로의 장례문화로 바꾸며, 기후위기를 초래한 자본중심의 상조시장을 기후위기 대응과 사람중심의 상조시장으로 바꾸기 위해 함께 한다.

하나. 시민의 협동을 통해 2010년부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담대히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①한겨레두레 조합원되기 및 ②한겨레두레상조 이용하기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사회적경제 시장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거래 촉진에 자발적으로 나서며, 바이소셜(BUY SOCIAL)이 우리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3년 2월 24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회원 일동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다른 상조회사에게 욕먹는 이유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참 많다. 누군가 욕하면 생각없이 동조하는 경우도 많다. 한쪽 말만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얼마전 야심한 밤 두시쯤 후배가 다급한 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지인이 자살을 했는데 찾아올 조문객도 없고 그 망자의 집안도 형편이 어려워 무빈소 장례를 치르고 싶는데 장례식장에 알아보니 비용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 했다. 그러면서 혹시 회원 가입은 안 했지만 한겨레두레협동조합 관계자와 연결을 좀 시켜줄 수 없느냐 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 두분 다 그 곳에서 무빈소로 장례를 치른 사실을 후배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빈소 장례임에도 그 병원 장례식장에 알아보니 상조회사 통하면 최소 비용이 8백만원이라 했다고 한다. 아마 어느 상조 회사도 다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연결을 해주었더니 무빈소 장례비용은 3백만원이 채 들지 않았고 장례도 무사히 잘 치렀다고 한다.

나 또한 1년 새 아버지, 어머니가 연달아 돌아가셨는데 모두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통해 무빈소장례를 치렀다. 장례지도사들은 더없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다. 비용도 차상위였던 아버지는 1백만원 남짓, 어머니는 2백 만원 남짓 들었다.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무빈소 뿐만 아니라 빈소를 차리고 하는 장례 또한 시중 상조회사를 통해 치르는 비용의 절반 이하면 충분하다.

장례식을 치러본 이들은 누구나 상조업체들의 폭리에 치를 떨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상주들의 죄의식을 이용해 끝임없이 돈을 뜯어내는 업체들. 마지막 가는 길 망자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해주고 싶어하는 상주들의 마음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상주들은 억울해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처음 경험해 보는 의례라 허둥대면서 무조건 상조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게 된다.

바로 화장장 화로 속으로 들어갈 줄 알면서도 값비싼 수의를 해 입힌다. 그것이 당연한 예의라 생각한다. 심지어 수의를 안 입히면 장례를 못 치르고 후손에게 해가 될 것처럼 회유하기도 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이야 부담이 없겠지만 가난한 이들은 수의 값도 엄청난 부담이다. 하지만 수의를 안 입혀 드려도 죄의식 가질 필요 없다. 어차피 다 벗어 놓고 가는 인생인데 죽어서 비싼 수의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래서 나그네는 두분 다 수의 없이 화장을 해드렸다.

장례 문화에서 발생하는 이 폭리 구조를 없애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혼탁한 상조 시장의 폭리구조와 리베이트를 완전히 없애 조합원이 안심하고 장례를 치루도록 돕는다. 또한 선수금의 50%를 안전하게 예치하고 맞춤형 장례와 직거래공동구매로 비용을 대폭 절감한다. 그래서 장례 비용의 거품이 없었던 것이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또 추모중심의 ‘추모형 장례’를 지향한다. 상주도 슬픔에 겹고 경황이 없는데 굳이 빈소를 차려 장례를 치르기 보다는 무빈소로 장례를 치르고 이후에 마음이 수습 됐을 때 망자에 대한 추모식을 따로 갖는 추모형 장례 문화를 권유한다. 추모식에서는 터무니 없는 음식 값 등으로 상조업체에 돈을 뜯길 일도 없다. 나 또한 어머니 장례는 무빈소로 치른 뒤 추모 음악회로 어머니를 추모했다.

한겨레두레는 저소득층 장례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그 덕에 나도 아버지 장례 때 차상위 계층 지원 혜택을 받아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겨레 두레는 또 리영희 선생, 김근태 전 장관, 장준하 선생, 백남기 농민 등 민주와 평화 평등과 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의 민주사회장을 치루기도 했었다.

최근에 가까운 벗으로부터 누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비난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누구냐고 물었다. 다른 상조 업체를 경영하는 후배에게 들었다 했다. 그들은 당연히 한겨레두레를 비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대답해 줬다. 한겨레두레는 다른 상조업체보다 3분의1, 4분의1 비용만으로 장례를 치르게 해주니 기존 상조 업체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할 일이다. 한겨레두레를 통해 자신들의 폭리 실태가 폭로되기 때문이다.

한겨레두레 같은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면 자신들의 사업이 위협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없는 이야기 지어내서 한겨레두레를 도태시키기 위해 근거 없는 비난으로 모함 하는 것이다. 상주의 장례 비용을 몇배나 절감시켜주는 것이 어찌 비난 받을 일인가?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벗에게 설명을 해 주었더니 한겨레두레 비난에 동조 했던 벗도 수궁을 했다.

그리고 나도 반성을 했다. 나 역시 부모님 장례 하면서 큰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한겨레두레협동조합 같은 곳을 널리 알려주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그래서 이리 구구절절 알리는 글을 쓴다.

많은 분들이 조합원에 가입을 하시면 언젠가 닥칠 가족의 장례문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가입을 적극 권유 드린다.
아울러 더 많은 분들이 기존 상조회사들의 약탈적인 폭리구조 장례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면 고맙겠다.

강제윤 시인 | 섬활동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공간채비

공간채비는 점점 더 다양한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과 개인이 다양하게 사용하는 공간채비는 마치 문화와 시민모임과 기업활동의 복합체같은 느낌입니다. 공간채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계속 성장해서 조합원님과 시민들에게 점점 더 큰 기쁨과 효용성을 안겨 드리기를 바래 봅니다.

올 해 1월 28일에는 우리 조합원 강00님이 활동하시는 궁궐해설사의 모임인 ‘궁궐길라잡이’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1999년에 출범하여 문화유산해설 활동을 통해 시민의 문화재보호 의식 향상에 기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아마도 예년까지는 코로나로 사람들이 궁궐을 비롯한 문화유산을 많이 찾지 못해서 아쉬웠을 텐데, 이젠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사람이 궁궐을 찾게 되어 바빠진 것 같습니다.

궁궐을 방문했을 때 해설해 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애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적 방문 현장에서 해설사분들을 만나면 새로운 마음이 들고, 열심히 귀기울여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 조합원들과 문화유산해설 특강 같은 것도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 해가 시작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추위는 떠나고 봄 비가 내립니다.

3월 첫 주에 4일간 우리 조합원인 임종한님이 회장으로 있는 ‘사회가치경영연구원’ 주관으로 ‘비영리경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중 워크숍 두 번째’를 가졌습니다.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경영 전문가인 ‘Markus Gmur(마르쿠스 그뮤어)’ 교수를 초빙해서 가진 국제 컨퍼런스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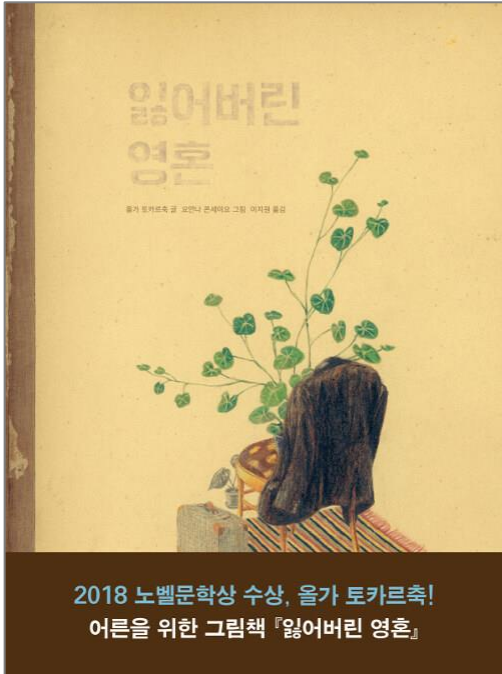
신협, 의료사협, 육아돌봄, 환경운동, 중구에서 밥상운동 하시는 조합, 중랑마을넷과 우리 한두레 조합의 회원과 경영진이 모여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뜨겁게 토의하였습니다. 이 현장을 쿠키뉴스와 이로운넷도 취재하였습니다. 상호간에 탄탄한 공동행동과 상호지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성장 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공간채비는 우리 조합을 위해서,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위해서 좋은 플랫폼 공간으로 발전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조합원과 이용자의 소중한 이용 경험을 받아 잘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저하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모쪼록 모든 일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공간채비 매니저 | 전승욱 부장

영혼을 기다리는 고요한 시간

잃어버린 영혼 올가 토카르추크 | 사계절



『잃어버린 영혼』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연필선 밑으로 고요하며 쓸쓸하고, 동시에 온기 어린 아름다움이 매력적인 그림책이다. 소설가인 올가의 첫 그림책이다. 영혼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의 비정상적인 속도와 자극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틀에 박힌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던, 사실은 평범한 한 남자가 어느 날 출장길 호텔방에서 숨이 막힐 듯한 통증을 느낀다. 그리고 순간, 그 어떤 것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무슨 일로 와 있는지, 그리고 자기 이름마저도. 다음 날, 그는 의사에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다.

실은 지금 그의 안에는 영혼이 없다는 것.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것. 미처 주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어디선가 떠돌고 있을 그의 영혼. 그날부터 남자는 도시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천천히 자신의 영혼을 기다리기 시작한다.

그림은 글이 서술하지 않고 열어놓은 이야기의 여백을 차근차근 채워 간다. 어린 영혼이 들려 오는 과거의 공간들. 어떤 날의 파티장과 낡은 레스토랑, 겨울의 빈 공원과 스치듯 흘러가는 기차의 풍경들. 책의 왼쪽은 오고 있는 영혼의 공간이고, 오른쪽은 머물러 기다리는 남자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 두 공간은 낡고 빛바랜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바탕의 재료는 실제로 요안나 콘세이요가 벼룩시장에서 구한 회계장부의 속지여서 사용 당시의 숫자 스탬프가 찍혀 있고, 마치 반복적인 일의 속성을 보여주듯 가지런하고 일정한 모눈이 그어져 있다.

출장, 일, 시계, 트렁크와 도시 그리고 지친 하루. 애석하게도 남자를 설명하는 표현들은 조금도 낯설지 않다. 마치 반투명한 종이를 덧댄 듯 남자의 모습 위로 우리의 모습이 겹쳐진다. 책의 첫 장면, 땀 흘리고 지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인 셈이다.

반복적인 삶을 살다보면 누구나 만나게 되는 공허한 순간들. 어쩌면 틀에 박힌 하루 속에서 영혼을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지쳐버린 나에게 그리고 답답하고 힘겨웠을 영혼에게, 한 마디 위로의 말처럼 건네고픈 그림책이다.✽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연합회/서울조합, 밀알복지재단 업무협약



밀알복지재단,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작은장례 및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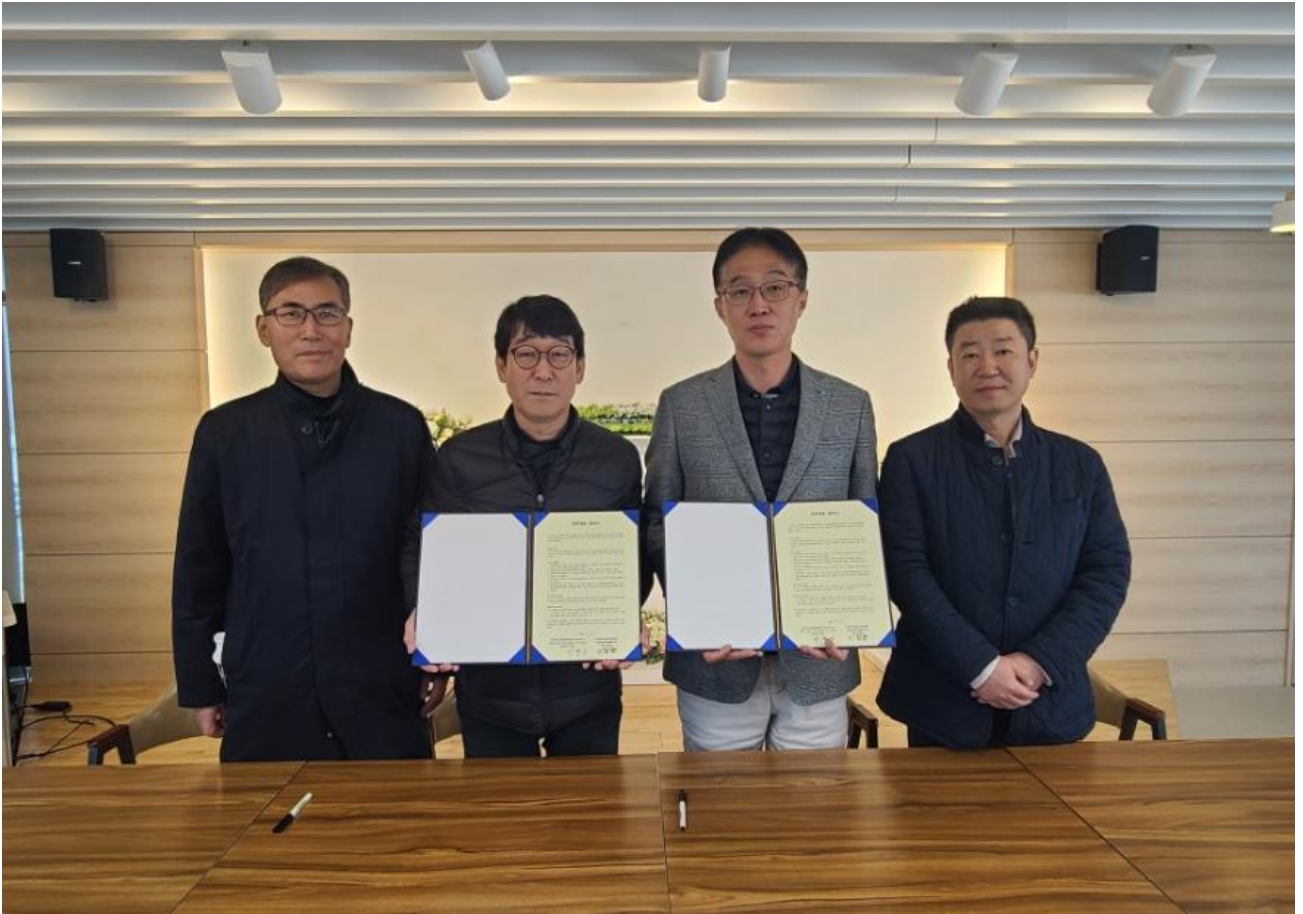
2월 2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밀알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93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설립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애도와 추모 중심의 장례 문화’를 모토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유산기부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밀알복지재단은 유산기부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밀알복지재단은 유산기부자 분들의 존엄하고 의미 있는 마무리를 위해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밀알복지재단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전한 장례 문화 정착 및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생전 유언장 및 장례의향서를 작성하는 공동 웰다잉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두 단체는 공통점이 많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좋은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창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회장은 “유산기부와 웰다잉이 만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 질 것을 확신한다” 며 “나눔과 장례가 결합되어 인간다운 삶, 존엄한 죽음을 실천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연합회, 더블유위안 업무협약



지난 2월 23일 공간채비에서 메타버스 온라인 추모관 개발 업체인 '더블유위안'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더블유위안의 '온라인 추모서비스'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장례서비스'를 협력하여 추모 중심의 장례문화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전에 온라인에서 장례준비를 하고, 장례 발생 시 실시간으로 온라인 장례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장례 후에도 온라인 가족 추모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상의 추모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며, 출시 후 조합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3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정기총회



지난 2월 23일, 2023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정기총회를 공간채비에서 진행했습니다.
어려웠던 2022년 결산과, 희망 찬 2023년 계획을 수립하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채비학교] 마음치유 프로그램 ‘상실에서 삶으로’ 후기



지난 2월 8일과 2월 15일, 마음 치유프로그램 <상실에서 삶으로>를 진행했습니다. 첫 강에서는 기억과 감정 나누기를, 2강에서 감정 돌보기에 대해 알아보고 각자 가진 기억과 감정을 나누고 표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죽음과 상실을 피할 수 없지만 애도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삶의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강좌를 통해 애도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상실에서 삶으로> 강좌는 이후 애도 주제 책 읽기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신윤동욱 조합원 모친상
유강문 조합원 모친상
하재찬 조합원 제주상

차혜숙 조합원 지인상
하태웅 조합원 부친상
이영삼 조합원 형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이양훈 조합원 이모상

2023년 1월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박홍근 조합원 모친상
김명환 조합원 모친상
배한익 조합원 부친상
강희정 조합원 조부상
전지영 조합원 모친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조상기 조합원 부친상

김창재 조합원 빙모상
윤광한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최귀년 조합원 모친상
김동희 조합원 모친상
안창로 조합원 빙모상
김상규 조합원 빙부상

백종필 조합원 부친상
안영찬 조합원 빙부상
문경인 조합원 조모상
강상철 조합원 모친상
심명희 조합원 시모상
이옥자 조합원 모친상
김석원 조합원 부친상

2022년 12월

이영민 조합원 모친상
이창근 조합원 부친상
박준기 조합원 부친상
김해용 조합원 장인상
최경순 조합원 모친상

이승재 조합원 부친상
이인희 조합원 고모상
이미영 조합원 시부상
김정희 조합원 모친상
송창석 조합원 장인상

최란 조합원 모친상
윤용호 조합원 모친상
권태영 조합원 삼촌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김현희 조합원 모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부고 및 사후 개별 맞춤형 메시지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모비** 조합원 무료 프로모션

메모비 '준비하다'

마지막 순간, 당신은 어떤 모습,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본인(故人)이 직접, 손쉽게 작성한 본인의 부고(訃告) 및 사후(死後) 메시지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사람에게, 순차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

- '고급형' 서비스의 경우, 추가 비용없이 부모님, 배우자, 지인 등의 사후 메시지도 작성, 전달 가능
- [기본형] 30명에게 한 분 당 3개 시점 별(사후 Only) 메시지 [고급형] 50명에게 한 분 당 6개 시점 별(생전 & 사후) 메시지 전달 가능

예시) 지정한 한 분 한 분에게 동영상 부고, 장례식장에서 전하는 메시지, 발인 후 감사 인사 등 전달



동영상 부고



장례 중 특정인에게 남긴 메시지



발인 후 감사 인사



치매 환자에게도 유용한 서비스

초대받은 분들께서 당신의 멋진 인생을!



▶ 메모비 소개

- 홈페이지 : <https://www.memovie.co.kr>
- 장례 메시지 서비스 예시 : <https://youtu.be/mkx31gb6Ya0>

▶ 서비스 이용 대상

고인 주도적인 새로운 장례 방법을 찾고 계신 6개월 전후, 본인, 배우자, 부모님 등 장례 예상 고객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 프로모션 신청

- 장례를 준비하는 조합원(본인, 배우자, 부모님 등) 신청 시, 서비스 이용 쿠폰 제공

▶ 신청 : <https://forms.gle/2DpQXkannbtHP12A>

▶ 서비스 문의 : 1688-9374, memovieq@memovie.co.kr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KGK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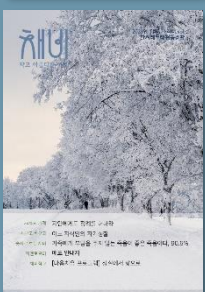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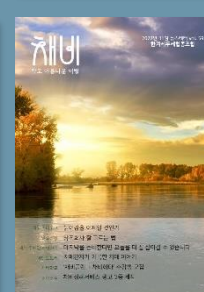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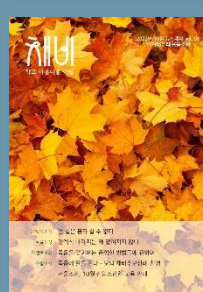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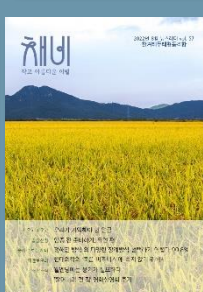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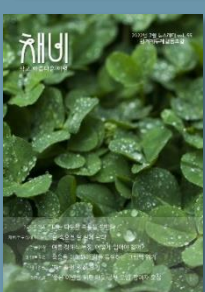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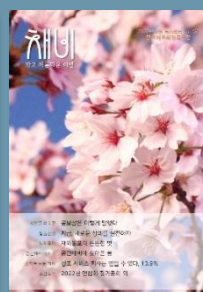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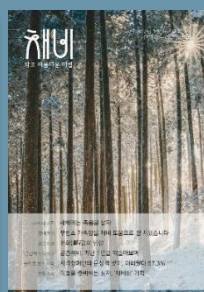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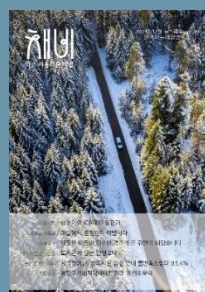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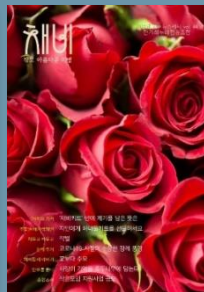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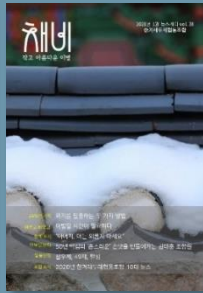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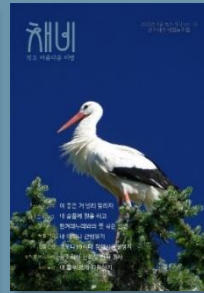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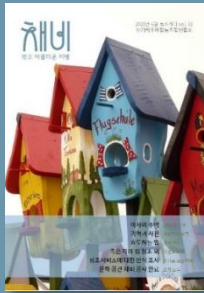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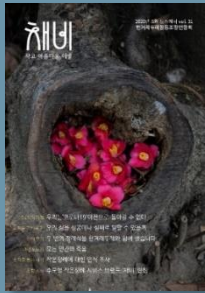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